

수검자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인식

홍순진, 이기만, 최석용, 최희정

울지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최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단편적이고 과장된 정보가 일반인에게 전달되어 사회적 또는 의료적으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검자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인식과 복용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거나 막는데 중요하리라 생각되어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방법: 2002년 5월부터 동년 7월까지 모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와 농촌진료소에 찾아온 수검자들 중 30세~79세를 3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수검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한 총 26문항을 포함하였다.

결과: 전체조사 대상 중 건강보조식품을 복용경험은 64%였다. 복용경험은 연령, 교육정도, 질병유무, 건강의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05$). 복용목적은 몸의 보호와 건강을 위해서가 72.9%, 질병치료가 16.3%였다. 복용동기는 아는 사람에게 의한 권유가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평소의 생각은 '몸에 좋지만 질병치료로는 효과가 없다'가 38.8%로 '몸에 좋고 질병치료에도 효과가 있다'의 8.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75% 이상이 질병 시 상황에 따라 복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보원은 TV, 신문, 잡지가 반 정도이고 주변의 아는 사람이 약 30%였다. 평소 생각과 복용의향, 정보원에 대한 응답에서 연령층별 차이가 있었다($P < 0.05$).

결론: 주된 건강보조식품의 복용목적은 몸의 보호와 건강 위해서이고, 주요 정보원은 대중매체이나 아는 사람의 권유가 가장 큰 복용 동기였다. 대부분의 수검자는 평소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질병이 걸릴 경우 복용할 의향이 높았다.

중심단어: 복용, 건강보조식품, 인식